

3/15/20

설교 제목: 남은 자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8 장 1- 22 절

- (창 8:1)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절관주** 출 14:21, 출 15:10
- (창 8:2)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절관주** 창 7:11, 욥 38:37
- (창 8:3)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백오십 일 후에 줄어들고 **절관주** 창 7:24
- (창 8:4)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이렛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 (창 8:5)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 (창 8:6) ○사십 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 (창 8:7) 까마귀를 내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 (창 8:8)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 (창 8:9)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절관주** 신 28:65
- (창 8:10) 또 칠 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 (창 8:11)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 (창 8:12) 또 칠 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 (창 8:13) ○육백일 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걷힌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걷혔더니
- (창 8:14) 둘째 달 스무이렛날에 땅이 말랐더라
- (창 8:15)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창 8:16)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 (창 8:17)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절관주** 창 1:22
- (창 8:18)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 (창 8:19)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 (창 8:20)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 (창 8:21)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절관주** 창 3:17, 창 9:15
- (창 8:22)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본문은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전하여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를 정립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멸절시키는 와중에도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짐승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대로 노아와 그의 가족, 택하신 짐승들이 모두 방주에 들어가자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런 후 비를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비는 40 일 동안 계속 퍼부어 150 일 동안 세상을 물에 잠기게 하였습니다.

150 일째 되던 날인 7/17 하나님께서는 물에 떠다니던 방주를 아라랏산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아라랏 산은 터기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이란과 아르메니아의 접경 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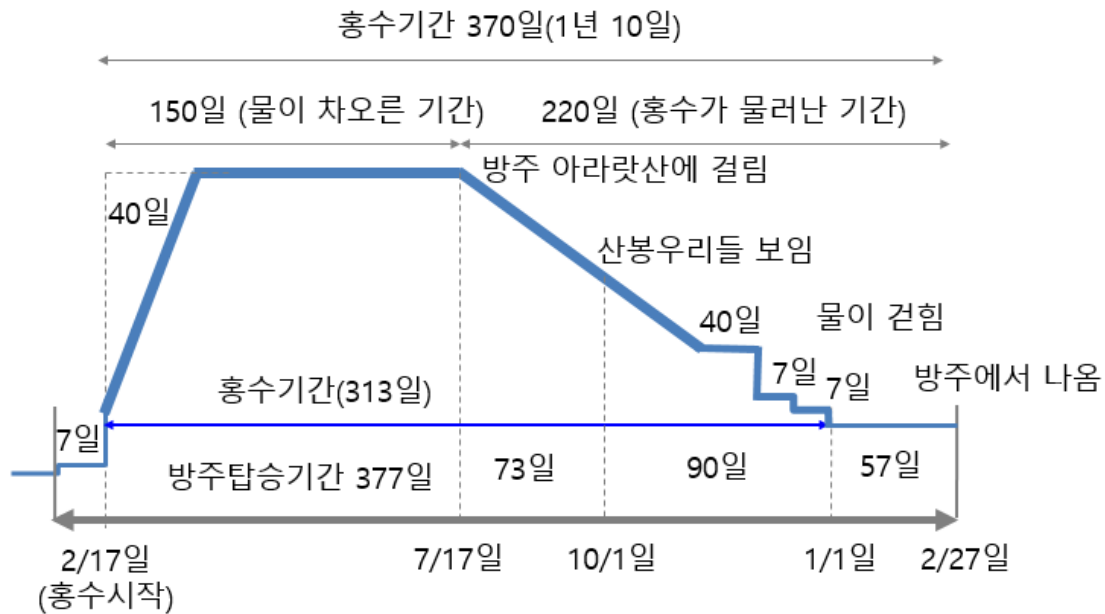
대륙의 중심지로 홍수 후 노아의 후손들이 세계 각국으로 퍼져 나가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산 꼭대기는 일년내내 눈이 녹지 않아 만년설을 볼 수 있습니다.



그후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여 물이 조금씩 줄어들게 하셔서 10/1 에는 산봉우리가 보이게 하셨습니다.

- (창 8:2)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 (창 8:3)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백오십 일 후에 줄어들고
- (창 8:4)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이렛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 (창 8:5)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노아는 산봉우리가 보인 후 40 일을 더 기다렸다가 지면의 상태를 알고자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 봅니다.

- (창 8:6) 사십 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 (창 8:7) 까마귀를 내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 (창 8:8)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 (창 8:9)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지면에 아직 물이 차 있다는 것을 안 노아는 7 일을 더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 봅니다.

- (창 8:10) 또 칠 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창 8:11)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이번에는 비둘기가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고 이로써 노아는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습니다.

노아는 또 7 일을 기다렸다가 1/1 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 봅니다.

(창 8:12) 또 칠 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번에는 비둘기가 방주로 되돌아 오지 않았습니다.

땅 위에서 물이 완전히 걷힌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땅이 마르기까지는 57 일이나 더 걸렸습니다.

(창 8:13) 육백일 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걷힌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걷혔더니

(창 8:14) 둘째 달 스무이렛날에 땅이 말랐더라

2/27 땅이 마르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창 8:15)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창 8:16)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창 8:17)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창 8:18) 노아가 그 아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창 8:19)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 얼마나 학수고대했던 순간입니까?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짐승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노아 때의 대홍수 하면 비가 내린 40 일 기간만을 생각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이 40 일 동안 방주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비가 오기 7 일 전에 방주에 들어갔으므로 그 7 일까지 계산하면 모두 377 일간을 방주 안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짐승들을 기억하고 보살피 주셨습니다.

(창 8:1)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짐승들을 기억하고 보살피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여덟 식구가 그 많은 짐승들과 함께 377 일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갑갑하고 냄새나고 견디기 불편했겠습니까?

그렇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고 철저히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목격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만이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창 8:20)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번제란 짐승을 잡아 살을 각 떠서 모두 불에 태워 하나님께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드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부인이며 자기 의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노아는 번제의 제물로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정결한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노아의 제사를 열납하십니다.

(창 8:21)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창 8:22)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것은 노아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노아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할
것이고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앞으로 심판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구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들의 행실로는 멸망받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악할지라도 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 땅이 있는 동안 심음과 거둠과 사계와 밤낮이 계속되게 하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심음과 거둠과 사계와 밤낮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자연의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코로라 바이러스로 인해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죽어 나자빠지고 국가 간에 교통은 다 막혀버렸습니다.

모든 일상이 정지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집 밖에 돌아 다니지 않습니다.

학교도 교회도 문을 닫고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행사는 다 취소 되었습니다

주식 시장은 패닉 상태이고 비지니스들은 도산 직전입니다.

사람들이 마켓에서 물과 쌀, 빵, 라면 등등 생필품들을 마구잡이로 사재기하여 마켓 선반은 순식간에 텅 비어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한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제 평생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이 우연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패한 세상에 내리신 심판의 경고입니다.

노아 시대 심판 직전 노아를 통해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경고의 시간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자들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을 온 국민이 함께 기도하는 국가 기도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환란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발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우리는 가만히 있지 말고 이 사실을 세상에 널리 전하여 한 명이라도 더 남은자 되게 합시다.